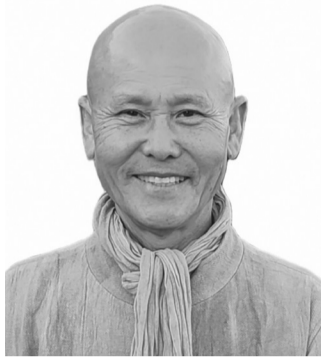


서귀포칼럼

좀 더 느리게 여유를 갖자



윤봉택  
시인, 삼소굴 시자

경험한 적이 있지 아니한가. 바로 제주도 행정 구역 개편 주민투표가 그것이었다. 제주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없애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개혁하는 혁신안에 대한 주민투표로, 2005년 7월 27일에 실시됐다.

당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니라, 도민 전체의 통합 투표 방식으로 결정됐다. 그때는 다 아는 바와 같이 도청 소속 공직자는 하나 같이 통합 혁신안 찬성을 홍보하는 선거 운동원이었다.

한데 20여 년 동안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받은 것은 무엇이었나. 지금에 와서 우리는 다시 기초 지방자치 부활을 외치고 있지 아니한가.

일례를 하나 더 들어보자. 1988년도까지만 하여도 제주섬에는까지 한 마리도 없었다. 그런데 1989년 아시아나항공 제주 취항 1주년, 일간스포츠 창간 20주년을 기념하며, 조류 전문 A 교수 등의 조언을 받아, 53마리를 관음사 주변 숲에 방사했다.

까치는 쉽게 제주 환경에 적응하면서 전적이 없어지고 농작물 피해가 심각해지자, 2005년에는 수렵 동물로 고시되어 무제한 포획하도록 했지만, 당시 언론방송에서 방사하여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의견을 피력한 A 교수는 지금도 말이 없다. 사실 없는 동물 방사도 제주도의 생태 환경을 이렇게 교란하는데, 하물며 몇천억 원을 투자하는 영구 시설물은 어떠한가.

그리고 빛이 그리 급한가. 지금 당장 아니하면 제주섬이 폭발이라도 한다는 것인가. 사실 개발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며, 우리의 권리 또한 아니다.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고통을 겪을 이는, 삶이 힘들어도 뿌리내린 이 땅을 지킬 수 밖에 없는 우직한 우리의 후손들뿐이다. 영구 시설물일수록 더 신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땅의 부모로서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어렵다고 한다. 삶이 어렵고, 생활이 어렵고, 하루하루 넘기는 것조차도 어렵다고 한다. 모든 게 어렵다 보니 여유마저 사라졌다.

혹독한 겨울이 가고, 그나마 올해는 영동할망도 온 섬 구석구석 불편함을 아시는지, 따뜻함으로 올레마다 봄의 기운을 한껏 내리고 있는데, 여전히 제주는 출고 실현률 잘 날 없다.

국책사업이니까 도민 여론이 양분되더라도 해야만 된다는 논리는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일까.

이제부터라도 많이 소통하고, 늦더라도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 시류에 따라 어제의 오늘을 달리할 게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좋고 나쁜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도민 정서와 정체성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 오랜 삶과 합의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보존과 전승이라는 역경 속에서 정립된다. 우리 어른들은 가끔 "정체 빠졌다"라는 말씀으로 모든 일을 회통해 길을 열어 주셨다.

그런데 지금 도민 사회에는 어른이 없다. 이는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과도 같다.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이 가중된다. 모든 관계에 있어 신뢰 자체가 붕괴하고 만다. 어쩌다가 우리 도민 사회가 이렇게 되었는지, 하지만 돌이켜보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 아닌가 한다.

이미 이러한 것에 대해 우리는

문화이야기



안예진  
서귀포공립미술관/학예연구팀장

주위 사람들에게 미술관을 자주 가는지 물어보면 유명한 그림은 너무 뻔해서, 현대미술의 작품은 뭘 봐야 할지 몰라서 미술관은 자주 이용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감상하는 즉시 좌석에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공연, 영화와 달리 형태와 색, 질감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으로부터 직

기고

고동민 / 표선면 주무관

불법 광고물 근절로 아름다운 표선면 만들기

한때 거리의 풍경을 더럽히던 불법 광고물이 이제는 우리의 도시를 포식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아름다움을 훼손하고,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도시 곳곳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불법 광고물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의 품격을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무분별한 홍보의 결과로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공중 보건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도로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적인 감성을 느끼기란 쉽지 않다. 어렵게 해외 유명 미술관에서 명작을 보면서 '음..모나리자구나.' '책에서 봤던 000 작품이군'처럼 기대했던 감동에 못 미치는 경험으로 씁쓸하게 미술관을 나올 때처럼 말이다.

아마도 시각예술이 관람자의 경험을 상키시키기에 스토리나 플롯이 생략되기에 너무 단순한 요소로 구성돼서일까? 하지만 이런 단순한 요소가 어쩌면 상상을 일으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다. 일차적으로 보이는 색과 조형, 그림이 말하는 혹은 작가가 말하는 주제나 소재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경험이 있는지 연관 지어 본다면 끊임없는 이야기가 되고 질문이 된다. 질문은 호기심이 되고 호기심은 다른 미술작품이나 연관된 다른 예술 장르와도 연결된다. 나는 이런 경험을 주제로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보고 싶다.

새로운 무언가를 기획하고 창작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일상에서 벗어나 환경을 바꾸거나 새로운 사람들

만나면서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한다.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새로운 환경을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자주 활용하는 방법은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는 것이다. 평소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나 머릿속으로 계속 되던 단어들 영화 속의 대사와 연관되고 SF소설에서 실현이 될 때도 있었다. 나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다시 전시에 적용하는 일을 하고 있다.

최근 나는 스마트폰과 가전기기를 연결했다. '건조기가 돌아갑니다' 말을 걸어 온다. '애완동물이 없는 나는 미래에 가전과 어울려 살겠구나' 하며 피식 웃음이 났다.

몇 년 전 융복합 전시를 과감하게 시도하고 있는 아르코미술관의 2021년 전시 '횡단하는 물질의 세계'를 떠올렸다.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것으로 작품들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시각적,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이진 대체 무슨 말일까? 비인간과 경계를 허문다고 한다면 작가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전시에 참여했던 소설가 김초엽은 인간과 자연, 기술 사이의 관계

를 발전시켜 몇 년 뒤 SF소설 <파견자>들을 발표한다. 그녀의 작품은 기술 진보와 환경 보호 사이의 대립을 벗어나, 서로가 하나의 유기적 조합으로 공생할 수밖에 없는 선순환적 미래를 상정한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미래의 가능성을 다른 각도에서 짐작할 수 있었다. 언젠가는 나는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공생하는 의미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는 이들과 함께 전시를 만드는 날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전시를 보고도 인간과 비인간으로 나는 이유와 기술과 환경이라는 개념은 왜 다시 생각해야 하지 궁금했었고 그 호기심은 하나의 소설 하나의 영화에 머물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씨앗을 뿌렸다. 이렇게 아이디어는 왔다가 다른 생각을 붙잡기도 한다.

미술이란 캔버스, 화선지, 조각과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보여주는 시각적인 예술이지만 작가의 다양한 경험의 집합체이기도 하다. 그들이 선택한 단어, 색, 재료, 주제를 다시 한번 호기심이 어린 시선으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나의 이야기 나의 아이디어가 되어있을 것이다.

기고

정현부 / 동홍동장

제13회 동홍동 혼디모영 문화체육대회 개최

서귀포 17개 읍면동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동홍동에서 12개동 주민과 14개 경로당 어르신 그리고 동홍동 15개 자생단체 등 2만4000여명의 동민이 함께하는 제13회 동홍동 혼디모영 문화체육대회가 오는 4월 27일



통적인 레시피를 활용해 요리를 만들어 대회에 출품함으로써 동홍동 지역의 문화를 보존하고 전통요리를 소개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홍동 사랑 퀴즈 골든벨 OX퀴즈에서 동홍동을 알릴 수 있는 역사문화 퀴즈대회를 함으로써 체육대회에 참석한 동민들이 동홍동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동홍동 14개 경로당 대항 제기차기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한 운동 습관 촉진과 친목 교류를 도모한다.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동홍동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며 친목을 도모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인근 행정 기관에 연락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불법 광고물의 근절은 우리의 도시를 쾌적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함으로써 제주의 관광품격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통해 더 나아가 제주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야 한다.



※ 외부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 축 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이사장

**김 문 수**  
(건축사사무소 한일 대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이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가 족 일 동**

**취 축 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이사장

**김 문 수**  
(건축사사무소 한일 대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이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건축사사무소 한일 임직원 일동**

**취 축 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이사장

**김 문 수**  
(건축사사무소 한일 대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이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귀포신문 임직원 일동**